

인식정당성 개념과 오류가능성의 문제

홍 병 선 (중앙대)

주제분류 영미철학, 인식론

주요어 인식정당성, 오류가능성, 믿음 속성, 내재론, 외재론, 진리-공현성

요약문

인식정당화론에 관한 논의가 현재 우리에게 폭넓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식론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과 로터식의 해체주의 등 영미철학의 최근 동향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관심의 축구라는 차원에서 앞에서의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오히려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일련의 동향과 관련하여 철학적 의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에 대한 검토는 문제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인식정당성 개념’에 대한 선행적 논의를 전제로 한다. 게다가 인식정당성 개념에 대한 선행적 논의 없이 일련의 흐름에 대한 올바른 평가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본 논의에서 주목하는 것은, 전통적인 규범적 인식론이 갖는 철학적 의미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인식론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인식정당성 개념’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의에 대해 그간의 성과를 짚어 보는 일이다. 이를 위한 일차적인 출발점이 논의의 핵심적인 전제인 참의 극대화화 거짓의 극소화라는 인식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오류가능성의 차단에 있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내·외재론적 견해간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확인 작업을 통해 인식론에 관한 논의가 왜 우리의 관심 영역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되짚어 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있다. 이것은 결국 인식정당화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들어가는 말

인식정당성¹⁾를 둘러싼 논의가 최근 들어 거의 종결되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한 동안 영미권에서 인식론을 전공하고 돌아온 소장학자들과 국내 학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전개된 적도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연구 성과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아무튼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이에 대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여기에는 영미철학의 최근 동향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식론의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이 규범성의 본령이라 일컫는 전통적 인식론이 자연주의의 입성과 함께 초토화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언어의 불확정성 논제에 힘입은 회의주의적 견해가 인식론에 불뚝이 튀면서 로티(R. Rorty)의 말대로 ‘인식론의 종언’을 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일 수도 있다.²⁾ 하지만 만일 그러한 이유라고 한다면 그 진단이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인식론적 논의 자체에 대해 그간 식상해 있던 차에 인식론에서의 자연화라는 새로운 경향이

1) ‘인식적 정당화’와 ‘인식정당성’은 엄밀히 말해 각각 영어의 ‘epistemic justified’와 ‘epistemic justification’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성격상 차별성을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 의미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문맥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할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정대현 교수는 “인식론의 종언인가?”(2000)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세기 인식론들의 특징적 구조는 이들이 직면한 20세기의 회의주의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다. 현대의 회의주의는 ”언어적“이라는 술어에 의하여 표상될 수 있을 것이다.”(146쪽), “20세기의 반실재론적 인식론은 모두 언어적 회의주의에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믿는다. 외재주의와 내재주의는 그 출발이 언어적 회의주의 보다는 게티어 문제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철학적 상황은 그러한 언어적 회의주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대 인식론의 이러한 대응은 일반 인식론의 포기를 뜻하고 특수 인식론의 폭발을 수반한다고 보인다.”(170쪽) 여기에서 정대현 교수는 20세기 들어 서서히 진행된 언어적 회의주의라는 경향이 인식론에 강하게 침투하면서 전통적인 인식론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오히려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흥미거리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되었지 그 반대는 아닐 것이며, 후자의 경우라고 해도 기존의 인식론적 틀 내에서는 더 이상 세계상을 반영해내는 투명한 거울의 구실을 해낼 수 없다는 로티의 지적이 연구자들의 기를 꺾기에 충분할 만큼 영향을 주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 로티의 지적대로라고 한다면 규범적 인식론이 더 이상 투명한 거울의 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그 대안을 마련하려는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또 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가 국내의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와 관련한 논의 자체가 현재 우리에게 폭넓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 타진 및 관심의 촉구라는 차원에서 앞에서의 두 가지 접근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인식론에 대한 자연주의적 접근과 로티식의 해체주의 등이 갖는 철학적 의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에 대한 검토는 문제의 원천이 되는 ‘인식정당성 개념’에 대한 선행적 논의를 전제로 한다. 게다가 인식정당성 개념에 대한 선행적 논의 없이는 이러한 기존 인식론의 와해 시도에 대한 올바른 평가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도 이면에는 ‘인식정당성’ 자체에 대한 전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시도나 전략이 먹혀들 수 있는 것은 ‘진리 조건’에 대한 처리 방식에 있어 기존 인식론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비판이 중요한 배경을 이룬다. 말하자면 기존 인식론의 경우 ‘진리 조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안의 모색은 필수적이라는 집요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현대 인식론의 주된 쟁점 역시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진리 조건’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는 ‘인식정당성 개념’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 재평가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의에서 일차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전통적인 규범적 인식론이 갖

는 철학적 의미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인식론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인식정당성 개념’을 둘러싸고 전개된 논의에 대해 그간의 성과를 짚어 보는 일이다. 이는 곧 인식론에 관한 논의가 왜 우리의 관심 영역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되짚어 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현대 인식론의 핵심 개념인 ‘인식정당성’를 둘러싼 논의에 대한 성과에 대해 진단하는 것과 아울러 이와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일 것이다.

2. 인식정당성 개념과 오류가능성의 문제

일반적으로 ‘정당화’라고 하면, 어떤 기준에 대해, 그러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주어진 기준을 만족한다는 의미에서 정당화라는 개념은 특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그 타당성을 가려내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평가적인 혹은 규범적인 개념이다.³⁾ 인식정당성 개념 역시 규범-평가적 개념이라는 사실에 대해 대부분의 인식론자들이 견해를 달리하지 않는다.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 믿음은 타당한 근거라고 하는 기준에 입각한 믿음이라는 의미에서 “인식론적으로 허용 가능한” 믿음이다. 역으로 그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정당화되지 않은 믿음은 인식론적으로 믿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러한 믿음은 믿어서도 안된다.⁵⁾ 인식적 정당화는 이처럼 믿어도 되는 믿음과 믿어서

3) 인식론의 핵심 개념인 ‘정당화’ 개념에 대해 명확한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은 주어진 행위에 대한 평가적 개념들로서, 주어진 대상의 성질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서술적 개념과의 구분을 통해 이해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4) 물론 매페(Maffie) 등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5) 이러한 믿음의 예로 ‘단순한 추측’에 의한 믿음이라든가, ‘억측’이나 ‘편견’ 그리고 ‘희망적 사고’에 따른 믿음 등을 들 수 있다. 제시된 믿음들이 지식이 되지 못

는 안 되는 믿음을 가리는데 관계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규범적 개념이다. 물론 인식적 허용가능성은 도덕적 허용가능성이나 타산적(prudential) 허용가능성과도 그 성격을 달리한다.

어떤 믿음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인식론적으로는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니는 것이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허용되지 않겠지만 만일 그 믿음이 관련된 사람에게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타산적인 견지에서는 얼마든지 허용될 수도 있다.⁶⁾ 말하자면 인식론적인 관점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타산적인 관점에서 허용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식정당성 개념’은 그 정당화의 대상인 믿음의 참과 본질적인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여타의 정당성 개념과는 특징적으로 구분된다. 인식론적 견지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당화된다는 것은 세계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믿음이 세계상을 그대로 비추어 주는 투명한 거울의 구실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믿든 그것이 참이라는 것이 곧장 보장만 된다면 정당화라는 개념적 장치는 불필요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곧장 참이 된다면, ‘정당화’라는 개념에 의거하여 바람직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을 가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될 것이며, 과연 있거나 한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진리를 곧장 반영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화’라는 장치가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의 즉각적인 믿음은 일반적으로 진리와는 거리가 있으며 정당화 개념은 우리의 단순한 믿음과 참과의 간격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참인 믿음에 이르도록 역할하게 되는

하는 이유는 그것들을 참이라고 받아들일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6)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특정한 상황을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를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을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타당한 근거가 있는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러한 심각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러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식론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타산적으로는 허용된다. 반대로 그러한 믿음을 거부할 경우 타산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지만 인식론적으로는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당화는 주관적인 우리의 믿음과 실재를 이어 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가교의 구실을 하는 정당화에 입각한 판단은 진리에 기준을 둔 판단이 될 것이다. 이처럼 진리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인식적 정당화는 여타의 정당화 등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향하는 목표는 실재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참을 극대화하고 거짓을 극소화해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참의 극대화와 거짓의 극소화라는 믿음의 두 가지 목표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는 지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다.⁷⁾ 그럴 경우 아무것도 믿지 않거나 참, 거짓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믿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⁸⁾ 결국 인식적으로 정당화된 판단이 진리에 기준을 둔 판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당화에 따른 인식적 평가는 세계에 관한 보다 많은 진리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인식자는 무엇보다도 인식을 통해 세계의 모습을 보다 참되게 반영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을 극대화하고 거짓을 극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거짓의 극소화와 참의 극대화가 어떤 믿음을 인식론적 견지에서 평가하는 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⁹⁾

인식정당화 개념에 대한 앞에서의 규정에 따라 참의 극대화와 거짓의 극소화라는 차원에서 어떤 믿음 체계가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었다고 했을 때, 그러한 믿음의 체계는 장차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혹은 ‘인식 정당화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오류로 드러날

7) Lehrer(1990), 55-6쪽 참조.

8) 각각의 경우 아무 것도 믿지 않는다면 거짓을 극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오류를 피하는 것만이 목적인 한, 아무 것도 믿지 않는 것이 인식론적으로 합리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반대로 참을 극대화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참, 거짓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믿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믿을 경우, 참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게 되는 경우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9) Alston(1985) 참조.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 ‘참의 극대화와 거짓의 극소화’라는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인식적으로 정당화된 믿음이 거짓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니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한 믿음들이 실제로는 거짓인 것으로는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식 정당화된 믿음의 오류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곧 인식적 정당화가 오류가능성을 논리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뜻 ‘지각적 믿음’¹⁰⁾이나 ‘추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믿음’¹¹⁾ 나아가 ‘수학적 명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수학적 명제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수학적 명제와 같은 필연적 명제에 관한 믿음의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일단 정당화된 경우 오류 가능성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수학적 명제가 필연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참일 경우 거짓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참일 경우 거짓일 수 없다는 것’과 일단 ‘정당화되는 한 거짓일 수 없는 것’은 다른 말이다. 참일 경우 거짓일 수 없다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의미로서 참인 수학적 명제가 거짓이 되는 가능세계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인식적 정당화는 인식론적인 개념으로서 ‘어떤 믿음이 정당화되었다는 것’과 ‘그것이 참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서로 별개 문제이다. 수학적 명제에 관한 믿음의 경우에도 인식적인 견지

10) 일반적으로 ‘지각적 믿음’이 정당화된다고 했을 때, 그 정당화는 명제적 내용을 지닌 전제로부터의 추론보다는 감각적 경험에 직접적으로 의존할 것이다. 그러나 것처럼 감각적 경험에서 비롯된 지각적 믿음은 그 자체 아무리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반드시 그 믿음의 참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추론 과정이 개입하여 얻어진 지각적 믿음의 경우에도 반드시 참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11) 대표적으로 과학 이론을 정당화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우리 외부 세계에 대한 믿음들이 증거로부터의 추론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그런데 정당화의 근거가 되는 추론이 귀납추론일 경우, 잘 알려진 것처럼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참이게 할 뿐이기 때문에 추론의 결론이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연역적 추론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과학적 믿음의 경우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에서 정당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논리적 개연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반대로 정당화되지 않는 수학적 명제에 관한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참일 수는 있으며 그 경우 그 믿음은 필연적으로 참이 된다. 수학에 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고 따라서 수학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떤 수학의 천재의 말에 따라 수학적 명제를 믿을 수 있다. 그 경우 그의 믿음은 결코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수학의 천재가 일러 준 것이므로 참이 될 것이며 또한 수학적 명제는 필연적인 명제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거짓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수학과 같은 필연적인 명제에 관한 믿음에 있어서도 그 인식적 정당화가 오류 불가능성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토대로 일단 오류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지식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구성한다면, S가 p를 아는 것은 (a) S가 p를 믿고, (b) S의 믿음 p는 오류 가능하게(fallibly) 정당화되고, (c) p가 참인 동시에, (d) 여기에서 (a)와 (c)를 함께 고려할 때 서로 우연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b)에 의해 보장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오직 그 경우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²⁾

지식에 대한 위의 정의는 S의 믿음 p에 대한 오류가능성을 허용하지만, 정당화 조건 (b)에 의해 객관적인 진리성을 획득하는 (c)의 단계로 발전할 때 또 오직 그 경우에 한해 S의 믿음이 지식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조건 (d)는 S의 믿음이 (b)에서 말하는 정당화를 한낱 주관적인 믿음의 단계를 벗어나 (c)의 객관적 진리가 됨으로써 지식이 되는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정의된 명제적 지식은 오류 가능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 참인 명제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 주체가 우연적으로 그 참임을 믿지 않도록 해준다.

지식에 관한 위의 정의는 오류 가능성과 양립 가능한 인식 정당화의 개념을 받아들임으로써 종래의 정의에 비해 보다 많은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다. 그 정의를 받아들일 때 이제 남은 과제

12) Sturgeon(1995), 17쪽.

는 그 정의에 포함된 오류 가능성과 양립 가능한 인식 정당화의 본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의 정의는 규범-평가적 개념으로서 인식적 정당화의 본성에 관한 논의를 보다 실질적인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식적 정당화가 오류 불가능성을 함축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만일 타당한 인식 정당화 개념이 오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칫 오류의 여지를 상당 부분 열어 놓는 인식적 정당화의 개념도 타당한 개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인식 정당화’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인식 정당화가 기여하는 역할이란 단지 오류 가능성을 허용하는 믿음을 확보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것처럼 오류의 여지를 남겨 놓은 ‘정당화’의 개념이 만족할만한 개념이라고는 물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자체는 주관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주관적인 것을 넘어 우리밖에 있는 실재와 부합할 때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레러(K. Lehrer)도 지적한 것처럼 순전히 주관적인 믿음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진리를 반영해 내야 하는 책임이 인식 주관에 있게 되는 것이다.¹³⁾ 오류 가능성은 실재로서의 대상 세계와 인식 주관간의 괴리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한 괴리의 가능성을 허용하게 된다면 순수하게 주관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실재에 도달하기가 그만큼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괴리의 가능성을 많이 허용하는 ‘정당화’ 개념일수록 실재의 반영이라는 인식적 목표에 도달함에 있어 그만큼 실패한 개념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3) Lehrer(1990), 15쪽 참조.

3. 인식정당화의 본성과 믿음의 속성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식정당화의 목표는 전적으로 주관적인 믿음의 체계가 참을 극대화하고 거짓을 극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실재를 보다 참되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역시 인식 주체에 달린 문제인 것이다. 주관적인 믿음을 참이 되도록 하는 인식적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식 주관에 달린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인식 정당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당사자로서 인식 주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정당화의 관건을 쥐고 있는 인식 주체가 제 역할을 다했을 때 비로소 실재의 반영이라는 인식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인식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인식 주관의 어떤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하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인식론자들은 ‘이성’ 내지 ‘경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찾았으며, 때로는 이 양자를 결합한 형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 방식이야 어쨌건 인식론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내세우는 정당화 방법에 의존할 때만 우리의 믿음은 객관적인 진리성을 획득함으로써 주관적인 믿음의 단계를 넘어 지식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방법이 어떤 것이건 간에 그것이 인식 주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정당화 방법을 통한 믿음이 실재를 전적으로 반영해 낸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전통적인 인식론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정당화 방법도 전적으로 인식 주관의 영역에 속하는 믿음과 이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세계와의 괴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기에 이러한 문제를 말끔히 제거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당화’ 장치가 아무리 견고하게 작동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결국 주관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이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정당화가 오류 불가능성을 함축할 수는 없지만 정도 이상의 오류 가능성을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정당화에 기초한 믿음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면 주관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없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정당화의 개념은 하나의 난제로 남게 된다. 전통적인 정당화 방법에 의한 믿음이 주관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없으리라는 사실은 인식론에 새로운 방향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이루게 된다. 그러한 새로운 방향을 연 인식론자들은 어떠한 정당화 개념이건 그것이 타당한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그 정당화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을 때 주관적인 한계를 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러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처럼 정당화 절차가 오직 인식 주관적인 혹은 내재적인 요소에 의거해서만 정의될 경우,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절차에 따라 아무리 정당화되었다고 해도 주관적인 성격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거꾸로 우리의 믿음이 인식 주관과는 무관한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 혹은 외재적인 요소를 통해 정의된 정당화 과정에 의해 정당화될 경우에 한해, 주관적인 성격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인식 정당화에서 인식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그 성격을 달리 설정하려는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그 자체로 인식론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획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도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삶에 관한 물음과 그 답변을 둘러싼 논의에서, 주된 해명의 대상이자 관건이 ‘인식 정당화’에 있다고 한다면, 인식 정당화의 본성을 규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3절에서 제시한 지식에 대한 정의를 전제로 하여 인식정당화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이다. 그리고 정당화의 본성을 밝히는 작업은 “S의 믿음 p가 속성 F_1, F_2, F_3, \dots 을 갖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 한해, p는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를 만족하는 속성 F들을 찾는 일에 해당한다. 이 정의는 S의 믿음 p가 어떤 특정한 속성 F들을 갖는다면 정당화됨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F들 각각은 정당

화된 믿음이 되기 위한 속성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일이 인식 정당화의 본성을 해명하기 위한 결정적인 관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러한 속성이 될 수 있는가?

위에서 말한 전통적인 인식론자들의 접근과 이에 대립하는 새로운 인식론자들의 접근이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곳이 바로 이 대목에서다. 그들은 위에서 언급한 믿음의 정당화 속성을 전혀 판이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현대 인식론은 크게 두 가지의 이론적 틀로 확연히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인식론자들은 인식 주체의 내적 속성(internal feature)에서 찾지 않는 한, 인식 정당화 개념의 규범적, 평가적 성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견해를 내재론(internalism)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내재론은 정당화된 믿음이 실재와 상당 부분 괴리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지니는 것으로 지적된다. 전통적인 인식론에 반대하는 새로운 인식론자들은 내재적인 속성에 매달리는 한 그러한 취약점을 극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인식 주관과는 무관한 외적(external) 속성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이러한 견해를 외재론(externalism)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¹⁴⁾

4. 믿음 속성을 둘러싼 두 견해: 내재론과 외재론

최근 인식정당화를 둘러싼 논의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의 구실을 하는 것은 내재론과 외재론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과 그 논쟁의 성과이다. 이에 대한 보다 선명한 이해를 위해서는 내재론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의무론적 견해와 외재론 간에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4) Craig(1990), 61쪽 참조

인식정당화에 대한 설명을 내재주의로 되게 만드는 것은 한 믿음의 정당화 여부를 결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에 어떤 조건이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인식정당화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일종에 인식 규범과 같은 것이다. 이 경우 정당화를 결정짓는 요인은 인식주체에 내적인 것(internal to the subject's mind)이 될 것을 요구한다. 달리 말해 반성을 통해 접근 가능할 것(accessible on reflection)이 요구된다.¹⁵⁾ 이와 달리 외재주의는 인식정당화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그와 같은 조건이 부과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외재론에 따르면 정당화 요인이 인식주체에 내적인 것이거나 반성을 통해 접근 가능한 것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성을 통해 접근 가능한”이라는 표현은 “인식주체의 마음에 내적인”이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위한 보다 분명한 설명의 구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이 반성을 통해 접근 가능한 오직 그 경우에만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내재적”이라는 의미에서 내 마음에 내적이다. 예컨대 나의 믿음이 내 마음에 내적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믿음에 대해 반성하는 경우에 나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지각적 경험들 역시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에 내적이다. 왜냐하면 내가 현재 특정한 사물이나 사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때, 나의 지각에 의해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의 두뇌 과정은 반성을 통해 나의 두뇌 과정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적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토대론과 정합론도 대표적인 내재론인 셸인데, 토대론에 따르면 인식적 원리나 믿음, 지각, 내성(introspection), 기억에 의한 경험 이외에 다른 정당화 요인은 없으며, 이 요인들은 모두 반성에 의해 접근가능한

15) 내재론은 인식 정당화의 속성을 S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한 측면에 호소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식 주체가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은 바로 자신의 내적 상태밖에 없으며 이것은 인식주체 S가 p에 대해 알고 있거나 그에 대한 정당화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내재론에서는 S가 어떤 '내재적 상태'에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한다. Chisholm(1989), 76쪽.

것들이다. 또한 정합론의 경우 정당화 요인이 자명한 인식적 원리나 믿음 그리고 믿음들 간의 정합 관계로 제한되는데, 이 또한 반성을 통해 접근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를 경우 오직 참인 믿음을 받아들이되 그렇지 않은 믿음을 결코 받아들이어서는 않된다는 인식주체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정당화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믿음의 정당화를 위한 의무론적 개입 또한 필수적이다.¹⁶⁾ 그렇다면 인식 정당화된 믿음은 타당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된 믿음이라는 의미에서 “인식론적으로 허용 가능한” 믿음일 것이다. 반면에 정당화되지 않은 믿음이란 그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인식론적으로 믿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러한 믿음은 믿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은 인식적 평가의 주체인 인지자가 문제의 믿음에 대해 타당한 근거와의 뒷받침 관계에 관한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다는 생각은 매우 자연스럽다. 말하자면, 한 믿음이 정당화되었다는 것은 인지자가 그러한 믿음을 가짐에 있어 그 뒷받침 관계에 관한 인식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⁷⁾ 이렇게 보았을 때, 한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은 참인 믿음을 받아들이되 거짓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무 이행에 속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인식정당화는 인식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의해 확보되고, 동시에 인식정당화라는 개념은 인식적 평가의 차원에서 의무를 나타내는 개념인 ‘의무,’ ‘책임,’ ‘허용’과 같은 의미로 규정된다.¹⁸⁾ 그래서 대부분의 전통적 인식론자들은 인식정당화의 개념을 의무론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여겨 온 것이다. 그

16) 홍병선(2002) 4절 참조

17) 인식적 목표가 참인 믿음의 확보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인식 의무를 수반하는 내재론의 고전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로크에 따를 경우 “이성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명제에 대한 믿음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이후 20세기의 “우리의 증거에 의해 지지되거나 정당화되는 것을 믿고 증거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것을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는 펠드만 등의 견해로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R. Feldman(1988), 254쪽.

18) 이에 관해서는 Alston(1988a) 참조.

래서 내재론적 관점에서는 인식 의무론적 조건을 포함하는 것이다.¹⁹⁾

이에 반해 한 믿음의 정당화가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다는 관점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알스톤(W. Alston)은 의무론적 인식정당성 개념의 심각한 결함은 ‘진리-공헌적(truth-conducive) 근거와 올바른 방식으로 결합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²⁰⁾ 한 믿음의 정당화가 인식정당성의 목표에 따라 진리-공헌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근거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²¹⁾ 이에 따르면 적합한 근거들은 진리-공헌적이어야 하는데, 그 근거로 작용하는 믿음들은 참이거나 참일 개연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²²⁾ 알스톤이 말하는 인식적 개연성은 주어진 증거와 관련하여 믿음이나 명제에 부여하는 정당성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한 믿음을 개연적하게 만드는 근거는 인식자가 갖는 증거가 아닌 자연법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 개연성 개념은 일종에 ‘경향성’에 의거한 것에 다름 아는데, 이러한 개연성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 세계의 합법칙적 구조에 따라 한 사태가 다른 사태를 개연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다."²³⁾

이러한 그의 주장에 따라 한 믿음이 정당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자체를 사실적으로 개연적하게 만드는 어떤 근거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알스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인식적 개연

19)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증은 홍병선(2002) 참조 바람.

20) Alston(1989), 95쪽.

21) 의무론적 인식정당성 개념에 대한 알스톤의 비판은, 즉 의무론적 정당성은 진리-공헌적이지 못하며, 그래서 인식적 목표에 비추어 올바른 종류의 정당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22) Alston(1989), 231쪽.

23) Alston(1989), 232쪽.

성에 관한 한 의무론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인식 의무라는 관점에 비추어 사실적 진리-공헌성과 인식적 진리-공헌성을 구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그 이유로 한 믿음의 인식정당화에 관한 한 사실적 진리-공헌성이 아닌 인식적 진리-공헌성에 따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론적 관점에 따른 정당화된 믿음들은 인식적 차원에서 진리-공헌적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적 측면에서 진리-공헌적이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인식정당화의 진리-공헌성을 둘러싼 공방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재론적 전략이 갖는 성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외재론의 전형은 신빙론(reliabilism)에서 찾을 수 있다. 골드만에 따른 신빙론에서는 믿음-산출 과정의 신빙성(reliability of belief-producing processes)만이 정당화 요인이기 때문에 나의 반성을 통한 내적 접근과는 무관한 것이다.²⁴⁾ 여기에서는 근거가 사실적으로 개연적인 경우에만 적합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는 반성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 아닌 외적인 요인(external factor)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²⁵⁾ 이에 따르면 이 세계에 대한 거짓이 아닌 참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식을 형성하기 위한 일차적인 조건이라고 했을 때, 내재론은 한 믿음이 우연적으로 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재론의 틀 내에서 한 믿음이 지식이 되는 것은 사실과의 법칙적 관계를 통해 확보되기 때문에, 특권화된 자기-정당성을 갖는 믿음을 불필요하게 설정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서 참인 믿음을 지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그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믿음이 세계와 연관되는 방식에 있기 때문이다.²⁶⁾ 말하자면 경험으로부터 야

24) 골드만이 취하는 전략이 갖는 성격은 지식을 산출하는 것은 믿음과 그 믿음을 참인 것으로 만드는 것간의 어떤 관계 혹은 연관성에서 찾는다. 이러한 관계를 그는 '법칙적인 관계'로 분석하기도 하고, '반사실적인(counterfactual)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25) Goldman(1979), 1-23쪽 참조.

26)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컴퓨터를 본다는 사실이 내가 그 컴퓨터를 보고 있다는

기된 참인 믿음은 그것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인해 지식이 된다. 이처럼 외재론적 분석에 따른 지식은 한 믿음과 그 믿음의 참임을 연결시키는 어떤 과정이나 관계가 인지자의 반성적 접근과는 무관하게 사실에 입각한 관계가 되며 그러한 관계로 인해 믿음이 곧 지식이 된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내재론적 관점에서는 인식의무를 포함하기 때문에, 내가 p 를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이 현재 나의 의무에 속한 사안인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나의 의식과 무관한 이후에 획득 가능한 증거는 이 의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의 인식적 의무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내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증거는 나의 반성을 통해 파악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정당성을 의무 이행에 의거하여 고려한다면, 반성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정당화 요인일 수 없다. 이러한 입장 때문에 인식의무에 따른 이론은 내재론이라 불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당화에 대한 근거의 적합성을 주장하는 외재론적 관점에 따를 경우, 여기에서의 적합한 근거란 사실적 개연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개연성을 갖는지의 여부는 반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내재론에서 적합성의 조건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외재론, 즉 “반성적 접근(accessible on reflection)” 혹은 “인식자 마음에 내적인(internal to the subject's mind)” 것이 아닌 정당화 조건을 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논점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의 시각적 경험을 방해하는 요인들, 즉 안개가 자욱하고, 시력이 좋지 않고, 술을 조금 마셨고, 다른 생각으로 골몰해 있고 등의 상황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에 대해 “저기에 고양이가 있다”라고 믿게

믿음의 원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컴퓨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컴퓨터에 대한 믿음의 정당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있다는 사실과 관계되는 방식이다. 외재론에서 지식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이처럼 그 믿음이 어떻게 발생되는가에 있지, 그 믿음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Goldman(1979), 14쪽 참조.

꿈 만드는 인지과정은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즉, 이러한 인지과정에 따른 나의 믿음들이 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오로지 나의 반성을 통한 믿음이 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그래서 외재론에서는 인지자 정신에 내적인 혹은 반성적 접근에 따른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광범위한 경험적 탐구를 통해 한 믿음의 참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지금까지 “S의 믿음 p가 속성 F_1, F_2, F_3, \dots 을 갖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 한해, p는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를 충족시키는 정당화 속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두고 형성된 화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두 입장 간의 이와 같은 대립은 사실상 참의 극대화 와 거짓의 최소화라는 인식적 목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인식적 목표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은 결국 실재로서의 대상 세계와 인식 주관간의 괴리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설명 방식의 차이일 것이다. 물론 그러한 괴리의 가능성을 많이 허용하는 ‘정당화’ 개념일수록 실재의 반영이라는 인식적 목표 달성에 실패한 개념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인식적 목표 달성의 당사자인 인식주체의 반성적 접근가능성 또한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이는 곧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내재론에서는 실재를 전적으로 반영해 낼 수 있는 실마리가 오직 내재적인 것에 대한 해명을 통해 달성된다는 견해라고 한다면, 외재론에서는 실재가 우리의 믿음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외적인 관계에 의해 그 가능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각 견해가 실재의 반영이라는 인식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각 견해가 갖는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에 대한 해명과 함께 나아가 상대에 대한 이 필수적이다.

5. 나오는 말

지금까지 한 믿음의 정당화를 위한 믿음 속성을 두고 그 속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일이 인식정당화의 본성을 해명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는 전제하에 상호 대별되는 두 견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전통적인 견해인 내재론의 진영에서는 인식 주체의 내적 속성에서 찾지 않는 한, 인식 정당화 개념의 규범적, 평가적 성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반면, 새로운 견해인 외재론에서는 내적 속성에 매달리는 한 비록 정당화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실재와 괴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본질적인 취약점을 극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외적인 요인을 통해 인식정당화를 실현시키려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전제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 것은 참의 극대화와 거짓의 극소화라는 인식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오류가능성의 차단이었다.

내·외재론 간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우위를 지켜온 내재론의 진영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에 대해 새로이 등장한 외재론적 견해가 인식정당화의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으라는 가능성 또한 여러모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분명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최근 외재론이 최근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내재론이 안고 있는 특정한 난제에 대해 얼마간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재론으로 대체되어야 할 당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내재론이 전자의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봉쇄되었다고 말하기는 시기상조일 뿐더러 외재론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를 통해 오류가능성의 차단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된 두 견해간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확인 작업을 통해 오히려 인식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은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대 인식론에 관한 논의가 단일한 틀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논의의 확장 가능성(상호 공방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인식정당화론의 본질적인 측면과 아울러 다양한 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논의 과정에서 인식정당성 개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내·외재론 간의 공방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 세부적으로 포착해 내지 못한 것은 다음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홍병선 (2002), “인식의무, 그 자연화 전략상의 문제”, 『칸트연구』, 제10집.
_____ (2006), 『현대인식론 논쟁』, 한국학술정보.
- Alston, W. P.(1985), “Concepts of Epistemic Justification”, *The Monist* 68, reprinted in *Epistemic Justification : Readings in Contemporary Epistemology*, Rowman & Littlefield: Loyola Univ. Press.
- _____ (1988a), “The Deontological Conception of Epistemic Justification”, in *Epistemic Justification*, Cornell Univ. Press.
- _____ (1988b), “An Internalist Externalism”, *Synthese* 74.
- _____ (1989), “Internalism and Externalism in Epistemology”, *Philosophical Topics* 14.
- Chisholm, R. M.(1977), *Theory of Knowledge*,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_____ (1989), *Theory of Knowledge*,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Conee, E.(1988), “The Basic Nature of Epistemic Justification”, *The Monist* 71, 3.
- Craig, E.(1990), *Knowledge and the State of Nature; An Essay in Conceptual Synthesis*, Oxford Univ. Press.
- Dancy, J.(1985),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Epistemology*, Oxford: Blackwell.
- Feldman, R.(1993), "Epistemic Obligation," in Pojman(ed).
- _____ & Conee, E.(1985), “Evidentialism”, *Philosophical Studies* 48.
- Fumerton, R.(1988), “The Internalism/Externalism Controversy”, *Philosophical Perspectives* 2, *Epistemology*.
- Goldman Alvin I.(1979), “What is Justified Belief”, in Paul K. Moser, ed., *Empirical Knowledge*, Rowman & Littlefield.

_____ (1980), "The Internalist Conception of Justification,"
Midwest Stud. Phil., Vol. 5.

_____ (1986), Epistemology and Cognition,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Kornblith H.(1983), "Justified Belief and Epistemologically Responsible
Action", The Philosophical Review, XCII, No.1, January.

Lehrer, K.(1990), Theory of Knowledge, Boulder, Co : Westview Press.

Maffie, J.(1990), "Recent Work on Naturalized Epistemology",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Vol. 27.

Pollock, J. L.(1986), Contemporary Theories of Knowledge, Rowman &
Littlefield Press.

Sturgeon, S.(1995), "Knowledge", in Philosophy: A Guide Thought the
Subject, Oxford Univ. Press.

Steup, M.(1988),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Epistemology,
Prentice-Hall.

The Concept of Epistemic Justification and the Problem of Fallibility

Byung-Sun, Hong

This dissertation aims to the next two goals. First, in the study I will try to observe the philosophical meaning which has the traditional norm of epistemology. For this purpose, I will explore the result in what has been developed around 'the concept of epistemic justification'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o be the focused concept of epistemology.

Second, we will be able to confirm the essential differences of internalism and externalism in process which we search the various possibilities for interception of an fallibility to attain a epistemic aim. In conclusion, it will be provided the chance to turn back why we become aware of more than profound discussion regarding an epistemology distant from our interest.

Key Words: epistemic justification, fallibility, belief property, internalism, externalism, truth-contribution

홍병선 e-mail: hbshong@cau.ac.kr